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

안 형 주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

2018.2.20. 초판인쇄

저자/ 안형주

책임편집/ 이영진

출판기획위원/ 이성수 정철주 김덕주

발행인/ 서용원

등록번호/ 제452-2013-000006호

발행처/ 성서와교회연구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64-12

전화 (041)590-1037

E-메일 ywsuh4908@naver.com

ISBN 979-11-953590-6-6 93230

값 28,000원

추천의 글

안형주 선생이 오랫동안 구상하고 있던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이 드디어 간행되었다. 먼저 이 책의 간행을 축하함과 동시에 연만하신 연세에도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집필에 공을 들인 저자 안형주 선생께 치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저자 안 선생은 이 책의 저술 동기를 부여한 죽사^{竹史} 안창호^{安昌浩} 목사의 손자로서 오랫동안 그의 할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미주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해 온 분이다. 그는 일찍부터 그의 할아버지가 활동했던 미주 민족운동에 눈 떠, 그 민족운동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이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자료수집을 위해 과거 민족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나 그 유족을 찾아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그들의 경험을 녹취하는 일을 시작했다. 특히 민족운동에 앞장서고도 국가의 표창을 받지 못한 이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독립유공자로 표창 받도록 주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이뤄진 땀의 산물이다.

이 책은 먼저 기독교 특히 미국 감리회가 한국에 선교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 선교에 나선 외국의 선교부는 미국 남북감리회와 미국 남북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그리고 호주 장로회가 중심이



있고 그 뒤에 다른 교단들도 내한했다. 한국에서는 이 여섯 교단이 합의하여 선교지역을 분할했다. 미국 감리회는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와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지역 중심의 미국 북감리회 선교를 소개하고 이 지역에서 많은 선각자들이 입신하여 훗날 천안과 그 인근 지역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여기에 죽사 안창호 목사를 위시하여 정재관 목사, 현석칠 목사의 활동이 돋보이고, 아울러 유관순의 독립운동도 조명된다.

천안에서 3.1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안창호 목사는 그 뒤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안창호 목사는 하와이 한인촌 와히아와(Wahiawa) 지역에서 목회하는 한편 교민들과 함께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결행하기까지는 하와이 교민들의 뒷받침이 컸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 점은 김구가 「백범일지」를 통해서 언급했지만, 저자는 현지의 자료조사를 통해 백범의 증언을 입증하려고 했다.

저자는 안창호 목사의 목회와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미주 지역 교민과 교회의 민족운동 상황도 소개한다.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강영각의 활동과 황혜수의 형제클럽, 한석원 목사의 미주

민족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미주지역 민족운동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과 활동을 확대시켜주는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미주 민족운동의 전반적인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주지역의 민족운동이 중국과 연해주 등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어운동, 예술운동, 교육운동 등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이런 운동이야말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토대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독립운동도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교회를 통한 민족운동”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 세 가지를 처음으로 밝힌다고 주장했다. 첫째, 1919년 6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별도로 3.1운동 진상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둘째, 1928년 6월 LA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주일 학교대회에서 한국 대표 28명이 푸른색 한반도기를 LA제일감리교회 벽에 걸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셋째, 한글학교에서 교육 받은 2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주류사회에 전문인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저자는 그런 사례들을 민족운동 차원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일찍부터 자료 찾기와 인물 탐색에 나섰던 저자가 아니었으면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이 책의 무게를 더해준다.

이 책은 저자가 거의 한 평생 동안 모은 자료들을 쏟아 내고 녹여 기록한 내용들이다. 자료에는 문헌자료도 있지만 면담을 통해 녹취한 것도 있어서 그 노고를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많은 사진을 모아 기록과 녹취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이 책은 민족운동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로 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미주 민족운동이 안 형주 선생 같은 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도저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마디 추천의 말을 쓴다.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과 미주 민족운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8년 2월 10일

이 만 열



축하의 글

안형주 선생께서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책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이 3·1만세운동 백 주년을 앞두고 세상에 나온 것을 축하하면서, 큰 기쁨과 거룩한 설렘이 마음에 앞선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애국자라 여기지만 백 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백 년 전 삶으로 하나하나를 다 살아낸 우리 선진의 세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천안지역 만세운동에 얽힌 이야기가 이 책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만세운동이 단순한 지방 시위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정신’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고, 또 그 도화선이 미주를 거쳐 다시 국내로 역류시킨 위대한 정신사의 샘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그 시대 개화를 먼저 이룬 개신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중심 선상에 한국인 1세대 목회자 죽사 안창호 목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크다.

20세기 초(1903년) 경부선은 서울에서 천안 구간 부분개통이 먼저 완공되었다. 민족의 선각자 윤치호 박사가 천안 군수로 부임한 것은 경부선 철도의 부분 개통과 지속적인 공사 진행 감독을 위해서였



을 것이다. 철도의 개통은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천안이 직산군과 목천군을 통합하여 천안군으로 확장된다(1914년). 이 지역 선교가 윤치호에 의해 기도처로 시작된 이후 전도부인과 권서인의 방문, 그리고 직산군, 목천군을 담당했던 신흥식 목사(민족대표)의 순회전도로 천안읍교회는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교회의 부흥이 본격화된 것은 바로 죽사 안창호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이다. 1916년 천안 지방이 창립되면서 선교센터 역할을 할 교회가 천안 군내에 필요했는데 이 일에 안창호 목사가 뛰어 들었다.

그는 사직터 위의 땅군이 ‘뱀 집’으로 쓰던 11칸짜리 건물이 포함된 800주보의 땅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회들과 개인, 그리고 안창호 목사의 헌신적인 연보가 있었고, 예배당과 게스트 하우스, 사택을 마련하고 1916년 6월에 봉헌과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초청된 사람 중 하나인 윤치호 박사는 축사를 통해 “아는 얼굴이 많아서 반갑다”면서 기도처로는 지지부진했던 천안군의 전도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지방의 모든 연합집회와 지방회가 이곳에서 치러졌고 안창호 목사와 그의 아내 최배세 사모의 헌신적인 전도활동을 통해 3개월 만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민게 된다.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목사 부부의 헌신은 결국 가정에 치명적인 고난을 불러왔다. 1년 만에 세 아이와 최배세 사모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슬픈 일이 벌어진다. 천안 선교는 이렇게 아이들과 젊고 가녀린 여인의 순직의 터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홀로 된 안창호牧사는 1919년 민족운동에 뛰어든다. 천안과 공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그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준비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들고 헌신된 기독교인이 하나 되어 당시 감리교 천안 지방에서만 총 8차례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목천보통학교, 입장양대학교, 입장광부, 성환장터, 안서리광부, 풍세봉화, 천안읍내장터, 아우내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매우 조직적으로 기획된 거사였다. 이 가운데 천안읍내장터와 아우내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은 참가자수가 3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 부상자, 체포된 자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시위이다. 그런데 그 기획자가 바로 이 책의 동선을 그려내고 있는 1세대 목회자 죽사 안창호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당시 지역사회의 청년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이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



그 역량이 확인되었다. 교회가 진정한 애국애족운동의 산실이며 민족운동의 산실임을 인식한 것이다.

이후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이 교회는 1948년 사직동 첫 교회 자리를 떠나 문화동으로 이전했고, 다시 2008년 천안 남쪽 구룡동으로 이전하여 오늘날의 '하늘샘교회'가 되었다. 하늘샘교회는 20년 전부터 천안만세운동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1919년 3월 29일,' 그 애국애족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역사라는 말이 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후대에 전해지기까지는 누군가 기록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편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방대한 자료를 끌어모으신 안형주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편집과 교정, 그리고 디자인으로 수고한 이영진 박사에게 감사하며, 가치 있는 책을 출판해주신 성서와교회연구원 서용원 원장님께도 감사하다.

2018년 2월 20일

천안만세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수



차례

추천의 글 / vi

축하의 글 / x

제 1부 | 서문 / 001

제 2부 | 미감리교의 한국진출 / 009

개항도시 인천으로 / 010

내한 미국 선교사들의 외적 배경 / 012

태평양 우편 증기선박회사 / 013

미국의 상황 / 014

한국의 상황 / 017

인천 내리교회 최봉현(崔鳳鉉)권사 사위로 / 018

개혁파 선구자 탁사(濯斯) 최병헌(崔炳憲) 목사 / 024

탁사 최병헌의 민족 민권운동 / 026

최초의 기독교적 유교인 / 028

우리암선교사를 따라서 공주로사 / 029

제 3부 | 천안지방 만세운동 / 037

천안으로 모여든 애국계몽운동 목사들 / 038

죽사(竹史) 안창호(安昌鎬) 목사의

천안교회 개척(1915-1919) / 039

안창호 목사의 진천 부흥회와 청년 현성원 / 043

천안지방 주일학교 순회 총무 한석원 목사 / 045

정재관 목사의 입장교회 부임 / 049

현석칠 목사의 공주교회 부임 / 050

유관순과 안례아 / 052
 월슨 대통령의 14개조항 연설과
 재미교포 안정수의 귀국 / 054
 첫 하와이 이민선 통역 안정수의 미국 본토 행적 / 055
 미주 한인통합운동 / 059
 민족자결주의 복음과 국내 독립운동 기운의 조성 / 062
 3.1만세운동 / 067
 권서(勸書)와 천안만세운동 / 069
 천안지방 만세운동의 전개와 일본경찰보고 / 072
 3.1만세운동과 미국 선교사들 / 077
 천안지방만세운동 주모자들의 옥고와 재판 / 086
 3.1운동의 의의 / 087
 천안 읍내 만세운동 후 / 087
 안창호 목사의 하와이선교사 파송 / 090
 유교 유산 / 090

제 4부 | 하와이 한인촌 와히아와 / 095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는 하와이 경제 / 096
 포경산업(捕鯨産業) / 097
 미국인과 한인의 첫 만남 / 098
 하와이 사탕수수 농업과 외국인 노동자 수입 / 101
 하와이에 이민을 보내는 구한말 한국사회 / 103
 하와이 이민 한인과 한인사회 유래(1903-1926) / 105
 초기 화와이 한인사회 / 106
 에와(Ewa)친목회 / 109
 청파영사(淸派領事) / 111
 농장에서 도시로 / 117
 미국본토로 이주 / 119
 사진과는 틀려요 / 121
 사탕수수 노동자의 파업과 오아후 섬으로의 이주 / 124
 와히아와 파인애플 농장과 배영의숙 / 126
 스코필드군영 세탁업과 와히아와 한인촌 / 128
 한인들의 경제 / 133



한인 소비조합 / 138
 1926년, 하와이를 지나가는 한국유학생이 본
 하와이 동포들 / 140
 학생 기숙사와 사진신부의 친척 유학생들 / 142
 조미구락부(朝美俱樂部) / 145
 조미구락부의 역할 / 149
 소비조합과 실업진흥 / 151
 2세 민족운동 후원 / 153
 조미구락부의 사양길 / 157
 와히아와 한인기독교회 / 158
 업처취(Up Church)의 민족대표 박동완(朴東完)목사 / 160

제 5부 | 죽사 안창호 목사의 와히아와 민족운동 / 165

와히아와 올리브교회 / 168
 올리브교회 교인들 / 169
 올리브교회 재조직 / 171
 안창호 목사의 목회 / 174
 올리브교회 새 건물 / 177
 올리브교회 부인구제회 / 184
 애국단(愛國團)과 백범(白凡) 김구(金九)
 그리고 이봉창 / 186
 임시정부 외히아와후원회 / 191
 애국단 재조직 / 191
 죽사 안창호 목사의 일시 귀국 / 194
 와히아와 한인들의 중립 / 196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 / 198
 동안구락부(東雁俱樂部) / 199
 동안구락부 회원들과 와히아와 변두리 사람들 / 202
 목쿠레이아 사탕수수농장에
 네 번 일하러 간 안재덕(安載德) / 205
 시급 노동자에서 할당 소작인, 자작농으로 / 208
 쿠니아(Kunia) 델 몬트(Del Monte)
 파인애플 농장 한인들 / 209



쿠니아 파인애플 농장 한인들 / 213
 올리브교회 2세 활동 / 214
 와히아와 국민회 지방회 조직 / 216
 애국단 청년 유진석(兪鎭錫) / 217
 배영학교 / 219
 국어학교 교과서들 / 223
 국어학교 교사들 / 227
 국어학교의 쇠퇴 / 229
 국어학교의 영향 / 231
 죽사 안창호목사의 민족운동 성과 / 232

제 6부 | 강영각의 청년대회 / 237

이민 1세와 2세 간의 문화적 갈등 / 238
 농촌 2세 교육문제 / 240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출신 강영각 / 242
 2세들을 위한 영자신문
 ‘영 코리안’(The Young Korean) / 245
 청소년 동아리 조직자 / 247
 강영각의 2세 문제 인식 / 251
 농촌 오아후학생연합
 (Rural Oahu Student Union) / 252
 교민단총회관 점령사건 / 255
 강영각의 미국 본토 여행 / 257
 청년운동후원회 / 259
 조선소년동맹단 / 260
 청년대회(Mass Rally) / 262
 청년전도대와 청년희락회 / 266
 안창호 목사와 강영각 / 269
 경제공황과 공립학교 교사들 / 271
 지방영자신문 한인사회 홍보기자 / 274
 1935년 오아후 섬 국어교사들 / 277
 한인기독학원 / 278
 1930년 와히아와 한인사회와 청년모임들 / 280

한인 농부들과 국어학교 문제 / 282
조선소년동맹단의 종말 / 285
강영각의 청년대회가 2세에게 끼친 영향 / 289
강영각의 2세 민족운동 성과 / 290

제 7부 | 황혜수의 형제클럽 / 295

차미리사와 황혜수 / 296
미국에서 교육 / 300
미감리교 해외 선교 100주년 기념회 / 301
선교 100주년 기념박람회 / 303
한국학생들의 3.1운동진상발표회 / 304
호놀룰루 기독교 여자청년회(YWCA) 한인 서기로 / 306
첫 호놀룰루 한인 사회복지사 / 308
어머니 클럽 / 308
남풍사 / 309
'고모' 황혜수 / 310
호놀룰루 한인사회와 연극 / 312
한인 여성 새 일꾼들 / 314
형제클럽 / 315
1934년 '단오놀이'와 '결혼예비' / 317
16년 YWCA봉사와 휴양 / 324
학우회(學友會) / 325
YWCA 한국요리경험 / 326
무용단 / 327
발성영화 '심청' / 328
'고모' 황혜수의 형제클럽 성과 / 330
이태성(李泰聖)-호놀룰루 YMCA 한인총무 / 332
하와이 한인학생회연보
(Korean Student Annual) / 338
이태성의 2세민족운동결과 / 343
이한식(李漢植)과 하와이 사진신부 친척 유학생들 / 344

제 8부 | 한석원(韓錫源)목사와 아동가극 / 351

초기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조성과정 / 352
 1928년 캘리포니아 한인사회 / 356
 1920년대 신흥도시 로스앤젤레스 / 360
 주요섭의 ‘국어학교’ 제안 / 361
 세계주일학교 대회 / 364
 큰샘 한석원 목사 / 368
 리들리 해동학교 / 369
 아동가극 목적과 내용 / 372
 아동가극에 대한 기대 / 375
 리들리 아동가극대 공연 / 376
 아동가극 ‘우리나라만세’ / 379
 아동가극 ‘초로인생’ / 384
 아동가극 대성황 / 387
 라성국어학교 학예회 / 391
 한인아동교육기관 기성 발기위원회 / 392
 이승만의 증가주 방문 / 395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재미 한인 공동회들 / 398
 한석원 목사의 순행전도 / 399
 ‘세계명작가곡집 무궁화’ / 401
 재미일본인 국어학교의 영향 / 403
 국어학교 부흥운동 결과 / 405
 한석원 목사의 미국유학 / 408
 큰샘 한석원 목사의 미주 민족운동 성과 / 409

제 9부 | 미주민족운동 성과 / 413

국어학교부흥운동의 종말과 한인학생회보
 (Korean Student Bulletin) 역할 / 414
 한국 유학생들의 글들 / 414
 한인 고학생들 / 419
 한인학생회보 2세 특집 / 420
 캘리포니아 2세 클럽들의 농구시합 / 427
 떠돌이 농장노동자의 딸 앤 김(Ann Kim) / 428
 1930년대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 / 432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 436
국방경위대 맹호군 / 437
2세들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무용담 / 437
태평양전쟁중 주미외교위원부 / 439
중경특파원(重慶特派員) 파유추진(派遺推進) / 442
미주 한인 특무공작 납코(NAPKO) 작전 / 444
1) 미국주류사회에 전문가로 진출한 2세대 / 445
 예술가로 진출한 2세대 / 445
 작곡가 김을(金乙 Earl Kim) / 445
 재즈단서 팻 던(Patricia Dunn) / 446
 창작 무용가 룬 김(Ruth Kim 김영옥) / 448
2) 병리학자 문덕소(Henry Moon) / 450
 의사가된 청년들 / 451
3) 미국사회에 알려진 2세대 / 452
 제2차대전영웅 김영옥대령 / 452
 두 번 올림픽 금메달을 탄 세미 리(Sammy Lee) / 452
 할리우드 동양인배우 안필립(Phip Ahn) / 452
4) 고시조(古時調)를 영역한
 공백순(孔伯順 Inez K. Pai) / 453
5) 초기 미국한인사회를 글로 남긴 2세대 / 453
 초기 하와이 한인사회를 글로 남긴
 김봉희(Bernnice B. Kim) / 453
 부모들의 하와이 이민사정을 서술한 배 마가렛(권정숙) / 454
 소설 '토담'(Clay Walls) 저자
 김난영(Gloria Kim Hahn) / 454
 '조용한 모험'(Quiet Odyssey)의 저자
 백매리(Mary Paik Lee) / 455
 초기 한인들의 구비역사를 엮은
 신성려(Helen Sonia Shinn Sunoo) / 455
 '만세'(Masei!) 저자 현 피터(Peter Hyun) / 456
 초기하와이 한인들 사진첩을 편집한
 장확실(Roberta W. Chang) / 457
 자서전을 쓴 정남영 / 457
 와히아와의 첫 의사 위인산 / 458

- 6) 6.25전쟁후 한국에서 봉사한 2세대 / 459
 - 광복후 20년 한국YWCA연합회 고문으로
봉사한 박 에스더 / 459
 - 이대 사회사업과를 세운 신 매리 / 459
- 7) 광복운동의 기수 초기이민 1.5세대 / 460
 - 재미한인 대변인 전경무(田耕武 Jacob K. Dunn) / 460
 -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유일한(柳一韓 Il-han New) / 463
 - 미주 한인 특무공작 납코(NAPKO) 작전 / 465

제 10부 | 맺음말 / 471

- 미주 한인 사회구조의 특성 / 472
-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 / 473
- 하와이한인들의 집단행동 / 474
- 미주 한인 집단행동 / 476
- 재미일인들의 2세 문제 / 477
- 기독교적 유교인들의 미주민족운동 / 479
- 미주 한인들의 미군 종군과 전쟁 현황 / 482
- 주미 외교위원회의 실패 / 483
- 이민 1세 민초들의 독립운동 / 486
- 고국에 돌아와 묻힌 애국계몽 목사들 / 487

부록

1. 죽사 안창호목사 자필이력서
2. 최병현 <조선의 농촌문제> 靑年 1921년 9월호.
3. 안신아권사 녹취록
4. 대한제국 유민원장정(綏民院章程)
5. 청파영사(請派領事) 황성신문 1905년6월3일
6. 웰취감독이 일본정부 훈장을 받은 기사
7. 올리브교회 교인 명단(1927-1945)
8. 안재덕 약력과 신상카드(와이알루아농업회사)
9. 쿠니아 파인애플농장에 종사한 한인들
10. 강영각 이력서
11. 한석원목사 이력서

12. 세계명작가곡집 무궁화 목차성 / 030

그림부록

1. 개항기 인천 제물포 / 011
2. 내리교회 교인들 1905년 / 019
3. 탁사 최병헌 흉상 / 025
4. 최배세사모와 돌을 맞은 장남 촬영 1911년 / 032
5. 안구례 이화고등과 졸업 1911년 / 035
6. 하르빈 현성원목사 영문기사 1933년 / 044
7. 한석원 이력서 1930년 / 046
8. 1904년 인천 내리교회 영화학교 / 049
9. 유관순, 문필레와 안레아 / 052
10. 문필레를 이화학당에 입학시킨 신흥우 1912년 / 053
11. 네브라스카주 웨슬리안대학 안정수 1906년 / 058
12. 미주한국유학생들의 영문잡지 발행발기문 / 064
13. 월슨 대통령 / 065
14. 정재관목사 1904년경 / 085
15. 포경선 사우스 아메리카호 / 098
16. 사우스 아메리카호 항해 일지 곁장과
워커선장이 기록한 용당포 도착 일기 / 099
17. 사우스 아메리카호 워커선장이
조선인dml 인상을 읊은 시(詩) / 100
18. 대한제국 1902년 하와이 여행장 / 105
19. 청파영사(請派領事)를 대한제국 외부(外部)에
제출한 이동호 1905년경 / 116
20. 윤병구 임명장 1905년 / 116
21. 하와이 군도 지도 / 119
22. 오아후 섬 지도 / 119
23. 스코필드 군영 정문 / 128
24. 첫 간장 생산 실패를 인정한
한인 합자 간장회사 광고 / 136
25. 조미구락부 창립 2주년 기념 / 140
26. 조미구락부 창립 10주년 기념 / 145



27. 오운 / 153
28. 조미구락부서 발행한 악보들 / 154
29. 귀국길에 오른 김매리여사 / 156
30. 1923년 제3회 동아총회(東亞總會)에 한국대표로
선출된 안창호 목사와 박동완 목사 / 160
31. 하와이 한독당 간부들 1937년 / 163
32. 임정수 1907년경 / 168
33. 안창호목사와 올리브교회 교인들-
김기순 전도사와 주일학교 아이들 1927년 / 170
34. 안창호목사와 청소년지도자 강영각,
박신애, 주일학교 학생들 1927년 봄 / 173
35. 올리브교회 봉헌식에 참석한 하객들 / 183
36. 올리브교회 주일학교 선생들 1935년경
37. 올리브교회 교인들-박신애와 2녀 영희(Esther),
위인산의사 내외 1939년경 / 189
38. 임시정부 와히아와 후원회
39. 박동완, 임두화, 안창호 목사 1933년경 / 197
40. 백범 김구가 안창호 목사에게 보낸
이순신장군시 대련 / 198
41. 동안구락부 창립 5주년 기념식 겸 입회식 / 200
42. 1918년 일본여권에 붙였던 안재덕사진 / 205
43. 올리브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1934년 / 215
44. 올리브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1940년 / 216
45. 조선말교과서 / 224
46. 초등소학 권일 / 225
47. 와일루아 국어학교 여학생이 그린
한반도 지도 1930년경 / 226
48. 1914년 클레어몬트 군악대 / 243
49. 단뉴바 한인악대 1919년 / 244
50.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 학생들 1914년 / 245
51. 영코리안(한미보) 표지들 / 246
52. 재미한인 4지도자들 / 246
53. 한글판 '영코리안' / 246
54. 신한민보에 실린 한미보광고 1931년 / 247

55. 한미보에 실린 안창호목사 기사 / 247
56. 하와이왕실 군악대 시가행진 / 248
57. 강영각과 호놀룰루 한인감리교 찬양대 / 249
58. 올리브교회에서 농촌 오아후 한인학생연합
 첫 모임 1930년 6월 7일 / 254
59. 와히아와 레이레후아 고등학교 농촌학생연합지부
 회원들 1930년 / 254
60. 청년음악대 1932년 5월 / 263
61. 올리브교회에서 열린 6교회 웅변,
 합창경연대회를 마치고 / 264
62. 청년대회를 준비하러 호놀룰루 YMCA에 모인
 각 교회 대표들 / 266
63. 강영각과 최매리 결혼사진 1932년 9월 / 272
64. 초기 하와이 2세들과 안형주 / 273
65. 강영각의 한미인쇄소 광고 / 286
66. 샌프란시스코 한인야유회 1913년경 / 297
67. 1920년초 어머니클럽을 조직한 황혜수 / 309
68. ‘결혼예비’ 사진들 1921, 1927, 1934년 / 316
69. ‘결혼예비’ 기사 - 호놀룰루 스타볼리튼 / 320
70. 호놀룰루 YWCA 임원들 / 328
71. 해당화클럽 무용연습 / 328
72. 영화 ‘심청’광고 / 330
73. 하와이 한인학생연회 회보
 (Korean Student Annual) / 339
74. 한인 라디오, 유성기 판매 광고 1930년대 / 349
75. 호놀룰루 이오란이 고등학교에 모인
 사진신부 친척 유학생들 1928년 / 349
76. 캘리포니아 한인지역 사회들 / 352
77. 캘리포니아 콩밭 김을 매는 한인들 1915년경 / 353
78. 캘리포니아 한인 콩농장 가옥 1915년경 / 353
79. 캘리포니아 한인들과 백인 안식교인들 1914년 / 354
80. 캘리포니아 한인 벼농장에서
 밭로 타작하는 광경 1915년경 / 354
81. 캘리포니아 스타튼 자작

- 사탕무 농장 한인들 1917년경 / 355
82. 캘리포니아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교인들 1918년경 / 356
83. 장인환의사가 석방되어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 모인 한인들 1919년 1월 / 357
84. 로스앤젤레스 한인 잡화상 1930년경 / 360
85. ‘초로인생’ 무대배치도와 동선도 / 375
86. ‘나의사랑’ 악보 / 380
87. ‘맹호약동산해진’ 그림, ‘맹호약동산해진’ 악보 / 381
88. ‘단심가’ 악보 / 382
89. ‘축복’ 악보 / 383
90. ‘아름답다 열세집’ 악보 / 383
91. 리들리 아동가극대 1929년 3월 / 384
92. 로스앤젤레스 국어학교 유치반 1930년 / 391
93.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1920년 / 393
94. 유타주 트레몬톤 국어학교 1915년 / 393
95. 리들리를 방문한 이승만 1929년 11월 / 393
96. 신한민보에 소개된 국어학교 교제들 / 399
97. 단뉴바교회 1930년 3.1절 기념사진 / 400
98. 세계명작 가곡집 ‘무궁화’ / 402
99. ‘우라키’잡지에 실린 안정수의
한미무역회사 광고 / 420
100. 샌프란시스코 한인 2세 농구팀 1930년경 / 427
101. 앤 김과 그의 글 / 430
102. 국민회가 주최한 2세대들 모임 1940년 12월 / 435
103. 재미한족연합회 집행위원장 김호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1941년12월12일 / 437
104. 재미한족연합회에서 발행한
한인 증명증과 표장들 / 437
105. 미국연방정부 법무부가 발행한 김호 증경특파원
출국허가증 1942년 11월 25일 / 443
106. 전경무의 외교위원부 이승만 비판글
국민보 1943년 10월 27일 / 444
107. 미시간주 앤아버에 모인 이승만 지지자들

1944년 1월 / 444

108. 김을 사진들 / 447
109. 팻 던 사진들 / 448
110. 김영옥 창작무용 발표 광고와
뉴욕타임스 기사 1946년 12월 / 449
111. 김영옥 무용 사진들 / 449
112. 문덕소 사진 1973년 / 451
113. 공백순의 고시조 영문 번역집 / 454
114. 권정숙(Margaret K. Pai)의 'The Dreams of
Two Yi-min'(두 이민의 꿈들) / 455
115. 미국전쟁공채 홍보를 위해 활옷을 입은 김론영
(Kim Ronyoung)과 저서 'Clay Walls' / 456
116. Mary Paik Lee의 'Quiet Odyssey'
(조용한 모험) 표지 / 456
117. 신성려의 'Korean Picture Brides'
(한인사진신부들) / 457
118. 현 피터의 저서 'Man Sei'(만세) / 458
119. 장확실(Roberta W. Chang)의 책들 / 458
120. 사진신부출신 지도자 이희경과 여아들 / 460
121. 전경무사진이 실린 올림픽복권 1948년 / 462
122. 미국에 도착한 유일한 1905년 9월 / 463
123. 유일한 자서전 'When I Was A Boy in Korea'와
경제 월간지 '고려경제' 1945년 / 464
124. 태평양연구소 모임 1945년 1월 / 465
125. 재미한족연합회 서울사무소에서 1946 / 466
126. 윤봉길의사 생가를 찾은 안창호 목사과
엄항섭 1946년 / 468
127. 백범 김구의 이별 사진 1946년 / 468
128. 집단행동 분석도표 / 477
129. 고향 선산 부모묘 앞에 묻힌
죽사 안창호 목사 묘 / 488
130. 대전 현충원 죽사 안창호 목사 묘 / 489
131. 동작동 국립묘지 박동완 목사 묘 / 489

Mansae



제 1 부

서문



죽사



안창호.

우리가 익히 아는 도산 안창호의 이름이 아니다. 죽사 안창호 목사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독립운동에, 일생을 투신한 같은 이름이지만 도산^{島山}은 널리 알려진 반면 죽사^{竹峯}는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이름이다. 이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묻혀버린 기억이라기보다는 ‘민족’, ‘독립’이라는 거시적 상황 이미지에서조차 중앙화, 도시화 되어버린 기억의 편향성을 방증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 *Sitz im Leben* 주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실천이 빚어낸 그분들 자신의 삶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 각각의 치열한 삶이 맺어 낸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매를 추적하고 담아냈다. 하나의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일으키는 역사란 집중적일 뿐 아니라 분산적일 때 비로소 그것이 실질적 확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확산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지역의 도시들이 되었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천안^{天安}이라는 지역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과 역사에 주목하려 한다. 바로 죽사 안창호의 독립운동 거점이기도 하



다.

천안은 20세기 초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신도시로 부상한 지역이다. 이 시기에 젊은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들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한 계몽운동이 아니라 ‘애국’ 계몽운동이란 ‘민족운동’이기 마련이다. 그러면 민족운동이란 무엇인가. 민족운동(民族運動)은 유전자가 ‘민족’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협의(狹義)적인 개념이다. 민족운동은 ‘타민족의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는 약소민족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¹⁾ 이러한 정의는 타민족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는 민족은 민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압박으로 느끼지 못하는 민족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정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운동’은 사전적 의미에서조차 이미 ‘민족해방운동’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나아가 ‘여러 나라에 산재하는 동일 민족이 힘을 모아 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어의(語義)에서조차 ‘확산’을 띤다.²⁾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다루려는 내용은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후 일경에 지속적인 감시를 받다 1920년대 후반, 해외로 나가 동포사회를 이루면서 전개하는 민족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 부분 다룬다.

당시 민족운동은 개화(開化)와 더불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역설적으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한반도는 어느 곳이나 개화에 눈뜬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방 촌락에는 여전히 그 개화의 기운이 미치지 못하였다. 천안도 예외 아니었으나 새로 놓인 철로를 타고 모여든 젊은이의 발걸음이 눈을 뜬 바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록 일본인이 놓은 철로를 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한국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일본화하고 심지어 노예

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2) 같은 책.



화하려는 식민지 정책은 그동안 자라면서 배운 우리의 전통적 인륜에서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 개화가 가르친 이성적 측면에서 어긋나는 처사였다. 이와 같이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환경은 식민지 수탈에 갇힌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자각을 중심으로 응집되었는데, 우선은 구습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개혁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아울러 일본인을 압도할 수 있는 서구 과학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외적인 방향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일제시대에 전개된 이와 같은 민족운동의 성원들은 하나같이 솔선수범하고 연대하고 같은 목표를 두고서 함께 행동했다. 그들의 흔적이 이 책의 주된 맥락이며 특별히 죽사^{竹史} 안창호^{安昌浩} 목사와 천안 3.29만세운동, 그리고 충남 만세운동에 연루되었던 그의 동지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적 역량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표지로서만 알고 있던 거시적 민족운동을 떠받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낸 지역적 역량의 진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한말 한국 정계 일선에서 활약했던 개화파 지도자들의 사상을 이어받고 미국 개신교도가 된 인물들이다. 그들이 경부선 철로를 따라 천안 지방으로 모여들었을 때는 이미 국치^{國恥} 1910를 기점으로 각인된 애국계몽사상을 품고 있었다. 천안지방 3.1만세운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 일로 옥고를 치른 그들이 일경의 감시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망명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미주 동포사회의 민족운동은 그렇게 태동하였다.

안창호 목사가 1920년대 후반에 하와이 교포사회에 도착하였을 때 교포사회는 이민 1세와 하와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인구수가 거의 같아진 상태였다. 미주 한인사회 성원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자신들의 2세로 하여금 다수 민족사회인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전문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인^{韓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였다. 이들 두 가지 모두 교육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진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의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억압의 상흔을 가진 민족으로서 선진문명에서 자란 2세들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창호 목사는 동지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한 2세의 민족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현재 3·1운동을 기점으로 한 민족운동에 관한 사료는 많은 발표가 있어왔지만 이들 미주 2세 민족운동과 그 결실에 관하여서는 자료와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지난 20년간 필자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여 미주 한인 지역사회를 토대로 이루어졌던 보다 폭넓은 민족운동의 사료들을, 특히 한인 2세들의 민족운동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되 어떤 학제적인 개념이나 도식적 연구 관점보다는 생생한 삶을 중심으로 엮었다. 여기에는 당시 애국계몽사상을 가진 미주 한인 지역사회 목회자들과 일본-한국 감리교 선교회 감독들^{헤리스와 웰취}과 하와이감리교회 감리사들 간에 상반되는 목적과 갈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긴장감의 해소의 해소점도 밝혀나갈 것이다.

필자가 모은 이들 단체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의 결과들이 미주 한인 2세 민족운동의 가치와 결실을 다룬 책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동포들의 사회학적 연구, 그리고 21세기 세계문화 교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미국 사회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 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용이하지 않아 천안만세운동에 함께 했던 안창호 목사의 동지들 가운데서 가령 만주로 향했던 분들, 곧 현석칠^{玄錫七} 목사, 현성원^{玄聖元} 목사, 그리고 정재관



6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

鄭在寬 목사에 관하여는 이 책에 함께 엮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그들은 만주로 가서 재중국 조선족에게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려고 민족운동을 한 분들이다.

